

●14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신춘음악회 '새로운 30년, 그 서막(序幕)을 열다'가 오는 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박승희 지휘자.

새봄 알리는 실내 국악관현악 정수 만나볼까

뱃노래·신맞이굿·쑥대머리 등 무대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생동하는 봄기운처럼 새롭고 힘찬 실내 국악관현악의 정수를 펼친다.

신춘음악회 '새로운 30년, 그 서막(序幕)을 열다'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첫 무대는 박범훈 작곡가의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다. 경기민요 '뱃노래' 가락을 주선율로 아시아 전통 음악의 세계를 향해 출범하는 큰 배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나팔, 나각, 태평소, 북·징 등 악기들이 돛을 올리고 위풍당당하게 바다 위를 힘차게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이고의 작곡가의 '신맞이굿' 무대를 펼친다. 아쟁 연주자를 위해 쓰인 이 곡은 대아쟁과 소아쟁 선율을 번갈아가며 들려준다. 한국 무속 장단을 다양하게 활용해 무속적인 색채를 강하게 살리는 한편 무녀

의 상징인 패시지를 주로 연주한다.

곳의 경건함과 익살스러움, 흥겨움과 신명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하기 위한 아쟁 협연은 김슬지 연주자가 맡는다.

홍정의 작곡가의 마림바 협주곡 '바람의 노래'도 펼쳐진다. 지난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하트 오브 스톤' 공연에서도 선보였던 이 작품은 몽골 전통악기인 마두금과 양금을 위한 협주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림바 협주곡으로 개작된 버전을 연주한다. 마림바 협연은 김지향이 맡는다.

이어 최지은 작곡가의 거문고 협주곡 '심화(閃火)'를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계면조의 선율, 경기도당곳의 도살풀이, 도살풀이몰이, 터벌림, 터벌림몰이, 당악, 올림채몰이, 발빠드래 장단과 함께 강렬한 거문고의 선율이 엮여진다. 지난해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은 강태훈이 협연한다.

또 이날 공연에서는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작곡한 '쑥대머리'도 만나볼 수 있다. 춘

항가 중 옥중 춘향이 돌아오지 않는 님을 그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으로, 일제강점기 국창 임방울이 불러 유행기 음반이 100만 장 이상 팔린 신화로도 유명한 곡이다.

웅장한 국악관현악과 남성합창단 및 우리 소리 등이 더해지며 동·서양 소리의 하모니와 격정을 만끽할 수 있다.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교향악단,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명인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마지막 무대는 황호준 작곡가의 새아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Bardo)'다. '바르도'는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환생하기까지 49일 동안 중간 상태에 머물며 이승의 업을 모두 털어내는 상태를 뜻한다.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과 이승에서 짊어진 업장을 모두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가로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415-5403. /최명진 기자

제1회 빛고을미술대전 공모

한국문화예술연합회, 18-19일 12개 부문 접수

제1회 빛고을미술대전이 오는 18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한국예술종합교육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통합적인 문화예술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 대작을 출품하는 공모전과 달리 출품작 사이즈를 30-50호로 제한해 작품 크기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또한 기업체의 작품 매입을 유도해 건강한 미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응모 분야는 한국화·서양화·수채화·민화·조각·공예·사진·디자인·서예·문인화·서각·캘리그래피 12개 부문이며, 접수는 오는 18-19일이다.

원서 교부처는 한국예술종합교육원(동구 서석로 89)이며 우편 접수는 광주 서구 내방로354, 3층으로 오는 18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수상작 발표는 22일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빛고을대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3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최명진 기자

화합·사랑...ACC 로고송 '손에 손잡아' 공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로고송이 공개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브랜드 로고송 '손에 손잡아(Hands to Hands)'를 제작해 송출한다고 7일 밝혔다.

ACC는 오는 2025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브랜드 로고송을 새로 만들었다. ACC 로고송은 경제개혁 반복되는 가사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제작됐다. 특히 원곡 외에도 클래식, 국악 버전 등 고객 취향에 맞춘 다양한 음원으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ACC 로고송 '손에 손잡아'는 아시아의 화합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사는 'Hands to Hands, 문화를 만나자, Hands to Hands, 예술을 즐기자, I love it love it, 아시아의 모든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189> 육십사괘해설 :53. 풍산점(風山漸) 上

역경의 오십 세번 째 괘는 풍산점(風山漸)이다. 하경의 51, 52, 53번째 괘는 중뢰전, 중산간, 풍산점 순이다. 진은 나아가는 괘이고 사물은 끝내 나아갈 수 만은 없어서 간으로 받았고, 역시 사물은 멈추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점(漸)으로 이어 받았



사괘전에서는 '간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다. 사물은 끝내 멈추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점으로써 이어 받는다'고 해 '간자지야 물불가이종지 고 수지이점 점자진야(長者止也 物不可以終止 故受之以漸漸者進也)'라고 말한다.

역경에서 나아가는 괘로는 화지진, 지풍승, 풍산점이 있다. 진괘(晉卦)는 해가 떠오르는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승괘(升卦)는 올라가서 나아가는 것으로 지중(地中)에 있는 나무 씩이 위로 성장해 가는 것이며, 점괘(漸卦)는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승괘에서 자라난 나무가 이제 보다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다. 지풍승은 땅속에서 땅 위로 자라는 나무이고 풍산점은 산위의 나무이므로 더 크게 자라나는 뜻이 숨어 있다.

점괘의 내괘 간은 산, 외괘의 손은 산 위에 있는 높은 나무다. 즉 점괘의 나무는 높은 산봉우리 위에 있는 한그루의 큰 소나무 상이다. 큰 소나무는 한꺼번에 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성장한 결과, 드디어 큰 나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밟아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점(漸)이 나아가는 방법이고 방향이다.

승은 위로 자라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승(升)으로 나아가는 세력을 보아 그 나아가는 것을 인재의 등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점은 과거로부터 점점 나아가고 되돌아오는 뜻을 보면서 여자가 집 문 밖을 나서 시집가는 것을 취의취상(取意取象)하였다.

그래서 점괘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주제로 하여 육례(六禮)의 순서를 밟아 혼인 하는 것이 점이나아가는 절차이다. 그 절차는 먼저 신랑이 신부집에 혼인의 정을 넣고(納采) 신부의 운로(運路)를 살피기 위해 어머니의 이름과 당사자의 사주를 물으며(問名), 길한 혼인날을 잡아 신부에게 알리고(納吉)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며(納幣, 納徵), 택일한 날의 가부를 묻고(請期) 신부 집에

“여귀길, 이정 <女歸吉, 利貞>”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親迎) 여섯 단계를 밟아 시집을 간다. 점괘전에서는 '점은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니 남자의 행함(납채, 문명, 납길, 납폐, 청기, 친영)을 기다리는 것이다'고 하여 '여귀대남행야(女歸待男行也)'라 말했다.

풍산점괘는 천지비괘의 교역생괘의 움직임이 있다. 비괘(否卦)는 건남(乾男)과 곤여(坤女)가 아직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비색(否塞)의 괘이지만, 그 교제의 처음을 괘상에서 보면 비괘의 점적점인 삼, 사효가 움직여 교제한 것이 점괘이다.

여자를 취하는 것이 길하다고 보는 태산함(泰山咸)괘에서는 남자를 위주로 하여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만, 점괘는 여자를 주로해서 시집가는 쪽을 보고 있다. 점괘의 상은 장녀가 간(艮)의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점괘의 상하괘 간의 관계를 보면, 상괘 손괘는 순조롭고 하괘 간산은 막혀서 답답하다. 하층부의 문제를 해결할 육사가 매우 유능하고 재주가 있어 하층부의 답답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점괘(漸卦)'라 했다. 과년한 장녀가 문 밖으로 나와 시집가는 상이고 산 위에 나무가 자라는 모습으로 부드럽고 매력있는 여자(巽風)가 시집을 온 뒤에 모든 문제가 차츰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눈에 빠진 기러기가 높에서 나와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순서에 비유했다.

점괘의 전체 상을 보면, 산 위에 나무가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산중식목지과(山中植木之課)의 모습이고 높은 산에 나무를 심는 고산식목지상(高山植木之象)이며, 천리 길도 첫걸음부터 나아가는 천리일보지상(千里一步之象)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 나아가는 등계진보지의(登梯進步之意)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풍산점괘(漸卦)의 과사는 '여귀길, 이정(女歸吉, 利貞)'이다. 즉,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길하다.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는 뜻이다.

점괘에서 여자가 시집가서 길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하여, 단전에서는 비괘의 하괘 음효의 움직임이 보고 있다. 비괘의 내괘에 있던 곤(坤)의 육삼의 일음(一陰)이 나아가서 외괘 사효 위치를 얻은 것은 유음(柔陰)으로서 재능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올바른 위치를 얻은 것이고, 점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잘못이 없어야 나아갈 수 있다. 점괘에서 이효부터 상효까지는 정위에 정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잘못이 없이 점진(漸進)해 나아가면 올바른 목

표를 잃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여자가 시집가는 것만이 길이라는 것이 아니고 천하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집가서 받아들여야 하는 남편은 구오의 강건중정(剛健中正)의 패덕을 가지고 있으니 안에서 멈추고 밖에서 순종한다는 뜻으로, 급히 나아가려고 하면 금방 파곤해 지쳐버리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곤란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관련한 일이란 호괘에 화수미제의 상이 있기 때문이나, 외괘의 사효에 위치하고 있어 그 쓰임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곤란한 일이 없다고 취상(取象)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단전에서는 '점은 나아가는 것이다. 여자가 시집가면 길하다. 나아가 위치를 얻고 공을 이룬다. 나아갈이 바르고 바름은 공을 이루는 것은 나라의 경우도 같다. 위치가 강중을 얻고 멈추어서 순종하며 움직여서 공하지 않다'고 하여 '점자진야 여귀길야 진득위 왕유공야 진이정 가이정방야 기위강중야 지이순 동불공야(漸之進也 女歸吉也 進得位 往有功也 進以正 可以正邦也 其位剛得中也 止而巽動不窮也)'라고 말했다. 상전에서는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이다. 군자가 산의 편안함과 같은 현덕(賢德)을 가지고 높은 그 위치에 멈추어 있으면, 바람이 멀리 퍼지는 것처럼 스스로 풍속을 선(善)하게 해간다. 이는 큰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급하지도 않게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산상유목 점, 군자이거현덕선속(山上有木 漸, 君子以居賢德善俗)'이라 말한다.

점괘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길한 괘로 예부터 혼례에는 기러기가 쓰여졌다. 기러기는 물새의 한 종류로 홍(鴻) 또는 안(雁)이라 하고 가을에 남쪽으로 갔다가 겨울이 끝나면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거스름이 없는 것이 마치 처(妻)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 질서정연하게 날아가고 예(禮)를 갖추어 시집가기를 기다린다.

점괘의 호괘에는 화수미제(火水未濟)가 있는데 수(水)를 물가 수변(水邊)으로 보고 이(離)를 날아가는 새 로 생각해서, 수변(水邊)의 금수(禽獸)의 상으로 보았고 기러기로 취상(聚象)해서 본다. 그래서 수변에서 산 위의 나무를 향하고 점점 높이 하늘로 날아 올라 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점괘를 얻으면, 지금까지 막혀서 나아가지 못했거나 뜻하지 않게 고생했던 것이 드디어 타개(打開)의 첫걸음을 밟을 때다. 즉 비괘(否卦)의 일음(一陰)과 일양(一陽)이 교차하여 태괘(泰卦)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바로 점괘(漸卦)이다.

점괘에서는 급진하면 겨우 얻었던 상승의 기운을 좌절시켜 버리니까 급진, 경솔한 마음을 억제하고 절대 경계해서, 순서를 밟아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성간의 관계에서 도(道)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사업, 거래, 교섭, 담판 등은 서서히 발전하니 소극책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고 지위가 더 나아지며 신용도 얻어 한결음씩 나아가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구해야 하고 구할 수 있는 때다.

소망이나 원하는 바 등도 희망이 보이나 예정보다 늦어지기 쉬우므로 초조해 하지 말고 끈기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는 높은 가격에서 움직임이 있다. 내괘의 간(艮)을 높다고 하고 간괘 위에 외괘 손(巽)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간은 건(乾)에서 왔고 손은 곤(坤)이 올라가는 것으로 천지비를 타개하는 것이니 매매가 활황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주수, 이전은 고생이 있다.

혼인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길한 예이니 성사되고 남자 쪽이라면 연애가 진행 중으로 여자가 연상이고, 여자는 남자가 연하다. 기혼자의 경우는 바람나는 때로 중년의 여자가 바람난다. 잉태는 회임(懷妊)했고 안산이다.

병점에서는 대괘(大卦)의 간(艮) 중에 감독(坎毒)을 포함하고 있어 식독(食毒), 감기 등으로 점차 항진되어 큰 병이 될 수 있다. 기다리는 일은 성사를 볼 수 있다. 이 쪽은 간으로 멈춰 기다리고 있고, 상대는 도태(倒兌)의 기쁜 마음으로 이쪽으로 향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출인은 색정문제로 나갔다고 보고 분실물은 집안에 있을 수 있으나 밖으로 나가 잃으면 찾기 어렵다. 날씨는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며, 비가 오는 중에는 금방 구름이 흩어지고 바람이 불어 맑아진다.

풍산점(風山漸)괘는 기러기가 물가에서 높은 나무를 거쳐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각 효에서 해당시켜 설명한다. 초효는 호체 감(坎)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물의 가장자리 간(干), 이효의 간은 산석(山石)이고 호체 감의 첫효인 물가에 있으니 바위 반(磐), 삼효 간은 높은 땅으로 호체의 감이 변해서 곤으로 변하여 물인 육(陸), 사효는 육지에서 더욱 더 나아가 손의 초효가 되어 나무목(木), 오효는 변하여 간이 되고 산 위에 산이 있으므로 능(陵), 상효는 괘의 극에 위치해 있으니 지상에서 떨어져 있는 하늘 길인 규(逵)로 보고 있다. 또한 점괘는 혼인의 폐이기 때문에 부부의 교제가 진행되어 가는 단계로도 보고, 하늘로 날아 오르니 지풍승처럼 임관 승진의 단계로도 본다.



<동인 도시계획학박사·062-654-4277>